



차기 충남도지사 후보적합도 양승조 · 복기왕 오차범위내 접전

<KSOI> 조사결과 한국당 후보적합도 이인제 · 이명수 · 정용선 順

○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차기 충남도지사 선거 '차기 충남도지사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9일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와 유선전화(RDD)를 이용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충청남도 도지사 적합도에서 양승조 현 국회의원이 18.4%로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16.2%를 기록, 양승조 국회의원과 불과 2.2%p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충남도지사 후보적합도에서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29.2%로 24.4%의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 충남도지사 후보적합도에서는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2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명수 현 국회의원이 13.4%,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7.4%로 뒤를 이었다.

오는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차기 충남도지사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현 국회의원이 18.4%로 후보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16.2%로 2위를 차지했으며, 두 후보간의 격차가 2.2%p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4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기 충남도지사 후보적합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군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10.5%, 자유한국당 이명수 현 국회의원이 5.8%, 자유한국당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7%, 바른미래

당 김용권 현 충남도의회의원이 2.3%, 기타후보 1.6% 순이었다.

그러나 '적합한 후보가 없다'가 13.3%, 모름/무응답이 29.3%로 부동층이 42.6%로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민심의 흐름에 따라 충남도지사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현 국회의원(18.4%)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6.8%), 권역별로는 천안(35.4%), 직업별로는 자영업(27.0%), 화이트칼라(25.0%), 정치 이념성향별로는 진보(27.8%중에서 높았고, 최종학력별로는 대재이상(22.6%), 기구소득 500만 원 이상(26.8%), 국정운영 긍정평가(22.2%)층,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26.4%)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16.2%) 응답은 연령별로 30대(29.5%), 권역별로는 아산/당진(27.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26.0%)층에서 높았고, 정치 이념성향별로는 진보(25.6%)층, 최종학력별로는 대재이상(2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구소득 200-500만 원 미만(20.4%) 응답층,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25.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10.5%) 응답은 연령별로 50대(14.1%), 60대 이상(16.6%), 권역별로는 남동권(16.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5.2%), 가정주부(14.2%)층에서 높았고, 정치 이념성향별로는 보수(21.2%),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4.7%), 기구소득 200만 원 미만(17.5%), 국정운영 부정평가(23.1%)층에서,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30.8%)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차기 충남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3.3%로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당내 충남도지사 후보선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마 예상 후보 중에서는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2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명수 현 국회의원이 13.4%,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7.4%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22.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지방선거 기획특집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로 충청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3월 19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78.2%)와 유선전화(RDD)(21.8%)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수준이며, 응답률은 14.6%(유선전화면접 9.8%, 무선전화면접 17.0%)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이응노미술관 소장품 하이라이트展

오는 4월 22일까지 연장

2018 이응노미술관 소장품 하이라이트展 <이응노: 추상의 서사> 전시가 오는 4월 22일까지 연장된다.

이응노미술관은 당초 전시 종료일이 3월 25일로 예정되었으나, 본격적인 날들이 철을 맞아 전시 연장 요청 문이 증가함에 따라 전시 종료일을 4월 22일까지 28일간 연장 결정했다.

특히 지난 1월 12일 개막 이후 58일간 1만 5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했으며, 주말에는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응노미술관을 찾았다.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및 미술관련 인사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 작가들에게는 또 다른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영희기자



대학캠퍼스 3월의 설경(雪景)

새봄을 시기하듯 절기상 춘분(春分)인 21일 대전·충남 곳곳에 눈(雪)이 내린 가운데, 대전 유성구 국립한밭대학교 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허위사실 강력 대처”

이완섭 시장 “공직자들 사기 꺾고 민심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

서산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각종 허위 사실이 배포되는 것과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이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왜곡된 소문에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친인척과 공무원 개인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하자 선거 문화의 격을 떨어뜨리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이 날조한 유언비어는 시장 개인의 음해를 넘어서 서산시 행정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유언비어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민심을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했다.

터미널 조성사업은 정당성한

절차와 투명성과 행정상의 하자가 없음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해명 했지만 본인과 가족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분노를 참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섭 시장은 “시장이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막중한 자리로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시정에 임하고 있으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민선6기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중공 40년이 지난 현재의 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협소해 늘어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편한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받아드려 공약으로 내걸어 시장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으로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공무원까지 악의적 소문을 퍼트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적폐라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후보자인 예천 잠홍 중 수석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은 외부 민간 위원회들이 참여해 심의를 거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추천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수석동 일원에 총사업비 1403억 원을 들여 86만㎡ 규모로 추진 중이며 2017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복합터미널 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세력을 니를 대신해 형이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소인 N씨·CH씨는 00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500-7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을 이 시장의 형이 받은 것처럼 소문을 퍼트린 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피소인 N씨는 이날 회원들에게 확실하다.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 서 터미널 이전 반대 명분으로 시장과 고소인을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렸다고 고소인은 전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N씨와 CH씨는 지속적·지능적으로 버스터미널 예정부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날조하지 말라고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N씨·CH씨를 소문의 당사자인 이 시장의 형인 이00씨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원자력시설 지자체 감시권한 강화해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 검증단 활동 결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시민 검증단 활동 결과, 시설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자치단체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단장 박재욱은 21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검증활동을 종료 하고 검증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검증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27명으로 출범해 지난 1년간 검증활동을 해왔다.

이날 시민검증단은 ▲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 사용후 핵연료 ▲ 안전관리시스템 ▲ 방재시스템 ▲ 원자력안전제도 등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6개 분야의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검증활동 보고서를 내왔다.

시민검증단은 활동보고서에서 원자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 개선방안제시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따른 원

인구명으로 안전관리 조직의 강화를 주문했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종합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 이상소요계획으로는 향후 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및 인력유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원자력시설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제도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울러, 시민검증단은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장 주변지역처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검증단이 공개한 검증활동 보고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해 요구사항 반영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원자력시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서산시의회, 역대 의장과 간담회

역대 의장 초청... 서산시 발전 위해 개최



서산시의회(가우종재의장) 21일 역대 의장을 초청해 서산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가우종재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

진 이날 간담회는 박찬교 서산시·군 통합 초대 의장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의장들은 서

산시의회로부터 의회 운영현황과 성과를 청취한 후, 서산시 발전방안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전직 의장들은 “제7대 의회는 열린의정, 현장의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우종재 의장은 “역대 의장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7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8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복기왕 도지사 예비후보 “효도 아산 넘어 효도 충남 만들 것”

서천군 어머니복지마을 방문... 효도충남 위한 비전 밝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천군 어머니복지마을을 방문해 ‘효도충남’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밝혔다.

어머니복지마을에 도착한 복

기왕은 “앞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아산시의 모범 사례가 충남 전체에 잘 정착돼, 효도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머니복지마을 방문에 앞서 서천군 학교운영위원들과 만나 “고등교육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충남도와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시행하도록 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촌마을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기 위해 노력 해왔다. 어르신들의 무료 목욕권과 이·미용권, 100원 마중택시와 버스는 어르신들의 평생 노고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작은 의무”라고 말했다.

이러 그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아산시의 모범 사례가 충남 전체에 잘 정착돼, 효도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머니복지마을 방문에 앞서 서천군 학교운영위원들과 만나 “고등교육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충남도와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시행하도록 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촌마을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박완주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대표발의

농수산대학 졸업한 의무영농·영어이행 대상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학비와 물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의 조건인 6년간의 의무영농이행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읍)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영농·영어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민기, 남인순, 노용래, 백혜련, 안규백, 유승희, 원혜영, 정성호, 박주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

에 후계농어업경영인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써, 한국농수산대학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학비 및 물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수업 연한의 2배(6년)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농수산대학이 설립 이래 최초로 자기영농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리가 면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의무영농·영어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의무영농·영어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최영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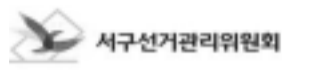
광고문의
(042)538-3030

‘알리’와 함께하는 ‘쑥쑥’ 선거법 Q&A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에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8년 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어찌때를 매고 다니며 명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이 아닌가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어찌때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알려주세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찌때 또는 표지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42) 471-1390

박경귀,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자명함 ‘눈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시지회 창립 25주년 행사 참석



박경귀(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아산시당 예비후보의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자명함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박 원장은 20일, 양양제일호텔에서 열린 (사)충청남도시각장애

인연합회 아산시지회의 창립 25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점자명함으로 인사를 나눠 참석자들로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박 원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아산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이라며, “우리 아산시에 1,500여분께서 시각장애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만나기 쉬운 아산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박 원장은 시민을 만날 때 꼭 수첩에 메모하며 귀를 기울인다고 들었다. 오늘 점자명함을 보니 그냥 메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박경귀 원장은 ‘시민이 바쁘다’라는 슬로건아래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설립하고 시정(市政)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를 구현하는 아산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장 예비후보 김정섭, 시정혁신 분야 정책발표회

‘시정혁신’ 분야 첫 번째 주제로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신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첫 번째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발표회에서 김정섭

김정섭 예비후보가 공약한 시정혁신 10대 공약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6.13 공주시장 지방선거를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잡기식의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집권여당의 후보단체 정책중심의 선거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복지와 교육, 관광, 문화에 속 등 시정의 각 분야별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매주 갖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천안에 드론 생산·유통·교육·연구 전담기지 건설”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 드론전담기지 조성안 제시



박상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21일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주도했던 (사)토닥토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가족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 국립어린

이재활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전 건립을 약속한 시간”이라고 강조한 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기재부 예산에 대전이란 지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전국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장애아동 가족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 건립을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전이 없는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 시책의 한계를 돌파하자는 의지에서라도 비로워달라”고 밝혔다. 천안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적일자리가 지역의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창업하기 좋고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 민간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또한, 박 후보는 지역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환경에 적응할 대안으로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ICBM)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현재 천안시의 고용률은 62.9%로 충남 15개 시군 중 9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천안의 특성상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법률 규정에 '우려반 기대반'

대책위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인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에 대한 개헌안 내용 중 수도 조항에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다. '법률 위임'이라는 하적으로 쉽게 가려다 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면서'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면서'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수도 지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수도 변경의 요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분명하고 확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도 완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면서 "그러나 헌법전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도 법률위임'에 대해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과 광역시장이 마치 동의하는 듯한 논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시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하며, 만약 '수도 법률위임'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이에 대한 충청도민의 배신감과 충격, 분노는 믿었던 만큼 더 배가될 수밖에 없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전국이 고품위 잡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의제로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를 할 허등의 이유가 없다. 116석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강고하게 표명해야 한다. '면서'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민투표로 가는 길등의 길이를 지적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 '수도(首都) 이전을 재추

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면서'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결을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면서'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행정수도 세종'을 구현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대외수도 서울이 상생적으로 절충되어 수도권주민과 국회의원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헌으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관습헌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기고, 대외·경제의 염원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은 시대정신이다. '행정수도 세종'이 상징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수

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최고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개헌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충청의 민심을 받들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총남도 549억 원 지원

총남도가 올해 549억 원을 투입,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용자(100%)로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고, 용도는 사료의 신규 구매, 기존 외산금액 상환 등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법인 등이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TMR 조사료 포함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 대상자는 영세농가, 구제역·AI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청년창업농가, 대규모농가 미만, 대규모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농가당 한도액이 6억 원, AI 피해농가의 경우엔 9억 원, 사슴, 산양, 메추리, 꿀벌 등 기타가축은 농가당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시·군畜牧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 시기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급급적 연강 3회 정도 분산해 지급된다. 3월에 60%, 6월에 30%를 선정·지급하고, 8~10월에는 미 대출 및 최소금액분 추가 선정을 통해 자금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이번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될 경우 외산구매가 현금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45억 원 정도 농가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총 1911억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사전 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은 23일 오후 4시 서문문화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출직공직자 공천관리시스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이공직선거후보추진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대전시당 지방선거기획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대전시당 출마예정자(광역단체장, 시·구의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한 선출직공직자 공천관리시스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이공직선거후보추진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9일 안전지사를 상대로 2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정복 기자

최종오 주무관 회계 실무지침서 발간 화제

그동안의 경험·실무사례 집대성·대전시, 업무활용 기대

대전시의 한 공무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실무사례를 집대성한 업무 관련 실무 지침서를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지난 6년 동안 회계과에서 회계심사와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오<사진> 주무관으로 최 주무관은 최근 '한눈에 보이는 통합 회계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회계업무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를 한눈에 찾아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책자는 총 400여 쪽 분량에 이른다.

이 책자에는 ▲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성질별 세부 집행 방법,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 공무원 예비업무 처리기준, ▲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방법 및 사례, ▲ e-호조간담대뉴얼, ▲ 집행품의 및 원인행위 실무, ▲ 세출예산 집행 10대 지침, ▲ 보조금 등 기타첨

고자료 등 실무 위주의 사례와 적용법이 꼼꼼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최 주무관은 수년간의 회계실무 강의와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 기간에 의한 지출품의 작성 방법, ▲ 예산편성 목적에 의한 집행방법, ▲ 집의 답변 사례, ▲ 여비지출 사례 및 집의답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쉽게 풀이했다.

최 주무관은 지난해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제정과 올해 1월 통합지출관리제도 본격 시행, 시 분청 및 사업소와 각 자치구청 회계실무자들의 자리 이동 등으로 담당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책자의 발간을 결심했다.

최 주무관은 "신사업이동으로 업무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들이 회계업무를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내용의 정확한



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이 책자로 회계 실무자들이 업무를 맡을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주운영 회계과장은 "이 책자에는 그동안 최 주무관의 실무경험은 물론 이론과 노하우가 총망라돼 있다"며 "설치 않은 일임에도 자신의 손을 담아 책자를 발간한 최 주무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 책자가 회계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극찬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 책자가 회계업무 실무자들의 업무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3.15 중소기업 청년취업 대책 '찬성56% vs 반대30%'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경 추진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목돈미리 지원금, 소득세 면제, 전·월세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3·15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3년 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5.7%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로 반대한다'는 응답(29.6%)의 두 배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7%.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1% vs 반대 19.2%)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경기·인천(60.3% vs 23.2%), 부산·경남·울산(56.3% vs 30.4%), 서울(53.7% vs 31.1%), 대전·충청·세종(49.7% vs 34.8%) 순으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구·경북(찬성 41.5% vs 반대 44.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71.5% vs 반대 11.7%)에서 찬성 응답이 70%로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58.0% vs 26.1%), 50대(53.2% vs 33.9%), 60대 이상(49.4% vs 32.8%), 30대(48.9% vs 42.1%)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 3곳 '전국서 빛났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서 'A' 등급 받아

충남도가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3곳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 등급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03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성과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및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 47개 지표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남부

평가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도립 장애인복지관 3곳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90점 이상 A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 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평가에서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시설 이용 장애인을 '사용자'로 부른다는 점에서 직원 모두가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생애주기 및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욱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도립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과제가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설공 세계 물의 날 맞아 체험공간 운영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중)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3일까지 환경인간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환경공을 주제로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부스를 통해 공단은 '하수처리 미생물 관찰'을 주제로 체험공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하수처리 과정 및 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그 노후유를 바

탕으로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중 이사장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고,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안희정이 제출할 '사진'

과연 형사처벌 변수될까

성폭행을 당했다며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 지사 측은 수일 내로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안 지사 법률 대리인인 이정주 변호사는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제출할 사진은 안 지사와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다양한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제출될 사진은 단둘이 있는 사진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과 통화 기록 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안 전 지사와 피해 여성들이 찍은 사진은 안 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가 현재 유력하게 적용을 검토하는 법은 형법 30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다.

형법 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규정이다. 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폭행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차이는 '간음'과 '추행'으로 다를 뿐 구성 요건은 같다. 그렇다면 이들 법 규정에 나오는 위계와 위력은 무엇일까.

위계(僞計)란 속임수다. 즉 속이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안 전 지사가 피해 여성들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면 위계로 인한 간음은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안 전 지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위력(威力)에 의한 간음으로 보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힘을 포괄한다. 따라서 폭력, 협박은 물론 시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력을 가진 충남 도 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상 '위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시에 위력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치열한 벌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첫 번째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력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벌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지사 측은 두 번째 피해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구소녀연에 대해서도 업무상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와 더연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3조에 나오는 '업무, 고용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 전 지사가 충남 지사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형법 303조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법 303조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의 권력 관계와 그 같은 위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인정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통상 판례는 위력에 대해 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9일 안 전 지사를 상대로 2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 특 정 ●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장 수여



한현택 동구청장= 22일 오전 11시 10층 중회의실(대청호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장을 수여.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 캠페인



박용갑 중구청장= 22일 오전 8시 중촌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 캠페인' 참석.

공사 현장 방문



장종대 서구청장= 22일 오후 3시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사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22일 오전 11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사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미세먼지 측정 리프트 맥 문합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민) 산부인과 송민중(사진) 교수팀이 중부권 최초로 부인암 치료 후 발생

할 수 있는 다리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미세현미경 리프트 맥 문합술을 성공했다.

다리의 림프부종은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의 치료를 위해 골반림프절 절제술이나 골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경우 다리의 림프액 순환 경로가 차단되면서 환자의 약 20~4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림프부종 환자들은 림프마사지, 물리치료, 압박스타킹 착용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부종으로 인한 폐근함과 압박감, 열감뿐만 아니라 감염질환에 노출돼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송민중 교수팀은 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림프부종이 있는 다리의 사타구니 부위에 4~5c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낸 뒤 미세현미경으로 다리의 미세림프관을 정맥으로 연결해 림프액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고난도 림프정맥 문합술을 성공했다.

이 수술로 초기의 림프부종 환자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다리의 변형이 동반된 진행된 림프부종의 환자에서는 림프부종의 진행을 막고 부종으로 불어 난 다리 부피의 20~25% 정도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발뭇을 짤 때나 피부의 단순한 상처에도 쉽게 세균 감염에 노출돼 발생하는 림프관염도 예방할 수 있으며, 압박스타킹 없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민중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림프부종은 그동안 치료할 수 없었던 분야이지만 이번 성공적 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부인암 수술 후 림프부종이 발생했던 수술을 빨리할수록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미국 소비재용품 수출 날개 달았다

市, 계약추진 1007만4000달러 · 수출상담 75건 3114만1000달러 성과 거뒀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미국 LA, 달라스, 실리콘밸리에 미국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계약추진 1007만4000달러(110억 원), 수출상담 75건 3114만1000달러(342억 원)의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미국 LA, 달라스, 실리콘밸리 코트라 무역관이 주관, 실리콘밸리 대전해외사무소(소장 박태환)가 공동 진행한 미국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스킨리더, ㈜바이오뉴트리젠, ㈜새온, ㈜소유, ㈜비티진, ㈜유진타일, ㈜매인 등 우수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대전지역의 7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은 해외 바이어가 운영하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코트라 무역관 현지 직원의 업체별 1:1 매칭 지원으로



계약 성공률이 높아져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동안 실리콘밸리 해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새온 / 교육용 로봇 생산)이 시장개척단에 합류해 계약이 성사되는 우리 시 해외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장개척단은 인구 증

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소비재 품목 집중 공략으로 수출 상담과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돼 향후 수출지역 선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은 참가업체의 우수기술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며 면서 깊이 있는 수출 상담과 수출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는 향후 미국시장에서 대전의 소비재 제품

의 판로가 확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시 김기환 기업지원과장은 "미국시장에서 대전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시장개척단을 비롯한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며 "참여기업의 제품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해외의 지사화 및 현지화 사업과 사후 출장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8개국 22개 도시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전문 박람회에 6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해외 통상사무소가 있는 일본, 중국, 베트남 3개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영호 기자

충남대병원 제31회 대전 안과 워크숍

충남대학교병원 안과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관절염·재활센터 3층 강당에서 제 31회 대전 안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흔한 망막질환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대처』이며, 대전 눈사랑안과 김용백 원장, 충남대학교병원 안과 김정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당뇨황반부종을 포함한 당뇨 망막병증,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포함한 황반부 질환, 병적근시, 망막 개원가의 일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안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과 지식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송병배 기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대전광역시시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2423명(개업 2,273명, 소속 150명)으로 2016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고용 등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3월 말부터 12월 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과 묵원대학

교 산학협력단(0동에서 실시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 윤리 등을 이수한 후 집합교육을 통해 중개실무 교육 등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연수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해주길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전우체국 직원 재치로 42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우체국 직원이 재치 있는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막았다.

21일 대전우체국(국장 이완직)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20분경 대전우체국을 찾은 A(85)씨는 정기예금 2건(4200만원)을 중도해약하면서 전액 현금을 요청했다.

사용처를 확인하는 김은영 주무관(사진)에게 이들의 전세 지금이라고 밝혔으나 김 주무관이 수표 인출을 권하자 현금을 고집했고, 아들과의 통화도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고령의 고객이 현금을 고집하며 시종일관 사기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을 찾은 경찰과 다시 한번 설득해 A씨를 귀가시켰고 지구대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대전화포 걸려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20일 우체국을 방문한 A씨는 "<우체국에 도둑이 있으니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우체국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이라며 "피해를 막아 준 김 주무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은영 주무관은 "고령의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고, 확인요청도 회피하는 등 해전화사기를 의심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신규·전입 공무원 구정현장 견학

대덕구, '희망대덕의 발자취'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계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구의 새 가족이 된 신규·전입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의 바로 알기와 업무의 현장 감각을 익히고자 관내 주요시설과 사업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구정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21일 열린 이번 현장견학은 ▶전국에서 찾지 힘든 연속된 7개의 굴다리에 펼쳐진 웹툰(벽화) 거리 견학을 시작으로 ▶시 문화재 회덕향교 ▶KT&G 신탄진공장 ▶금강로하스 타워 ▶대청댐과 대청댐 물문화관 ▶로하스가족공원 캠퍼지 ▶신탄진 정수사업소 등 관내 역사사업 현장과 주요시설

들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고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한 직원은 "1910년 이전에 조성된 근대 문화인 회덕동 굴다리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등하갓길을 피할 정도로 어둡고 칩칙한 굴다리였는데, 주민과 공무원들의 색다른 사고를 통해 근대문화 역사와 웹툰 캐릭터가 결합한 살아있는 거리가 조성됐다는 이야기에 뜨거운 힘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였다"고 말했다.

이날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신규·전입 직원과 담당회 자리에서 "대덕구로 임용과 전입을 환영하고 이번 구정현장 견학을 통해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과 섬김의 자세로 주민행복도를 높이고 희망대덕을 만드는데 직원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정현장 견학은 지난 2010년도부터 대덕구에서 새로운 공직생활을 하는 신규 및 전입 직원들에게 구정가치 공유와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태성기자



동구 내집 주차장 갖기 15가구 지원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공사유형에 따라 200만 원까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총 15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거지 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할 때 공사유형에 따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신청지와 동일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2.5m×6.0m 이상의 설치면적 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전부제외의 등이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9가구에 457건의 주차

시설을 조성했고, 고질적인 주차문제의 완화와 쾌적한 도로환경 등 주택가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구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과(251-49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복 기자

서구 해빙기 안전점검 시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1일 해빙기를 맞아 지역내 개발행위허가 현장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과병행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 옹벽, 배수로 등 시설물의 파손 여부,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박봉관기자

“갑자기 내린 눈 걱정마세요”

중구 부사동주민센터, 안전한 마을길 만들기 눈치우기 나서

대전 중구 부사동주민센터(동장 이도경)는 21일 아침 주민 안전을 위해 눈치우기에 나섰다.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밤사이 내린 눈으로 노약자와 골목길 경사가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안전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눈치우기로 변경되어 실시했다.

부사동 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등 3개 동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

여해 골목길 눈을 쓸고 눈이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렸다.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한 주민은 "비록 몸은 좀 고되지만 우리 마을 주민이 넘어지지 않도록 깨끗이 눈을 치워서 마음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도경 동장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2050년 석탄화력발전 0% 시대 연다

충남도, 재생에너지 47.5% 달성 목표...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추진

충남도가 오는 2050년 석탄발전 0%, 재생에너지 47.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을 선포했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에너지 시민 시나리오에 기반한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과 실천과제를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은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의 과정이자 결과로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은 전체발전량 중 석탄발전량 비중을 현재 87.8%에서 2050년까지 0%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현재 7.7%에서 47.5%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재 942만 2000톤에 이르는 발전부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1919만 4000톤까지 줄이고, 조미

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10㎍/㎥까지 감소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는 이번 비전에 6대 원칙, 4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6대 원칙은 충남이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하는 메시지로 ▲소비 절감 ▲공급 전환 ▲에너지 기업 ▲에너지 시민 ▲에너지 분권 ▲에너지 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6대 원칙에 따라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을 실현할 구체적 전략으로 채움, 키움, 비움, 나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움 전략은 전력믹스에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회적 수명 연구, 전환기금 조성, 충남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등이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키움 전략은 충남의 에너지 문제를 풀어갈 에너지 시민과 에너지 기업을 키우

는 것으로, 에너지 활동가 지원, 에너지 전환 거리 조성, 에너지산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비움 전략은 비산업·산업 부문 모두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비우자는 취지로,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그린 리모델링 확대, 생태산업단지 구축, 에너지효율시장 확대 등이 추진된다.

나눔 전략은 에너지전환의 비용과 편익을 함께 나눠 부담하고 향유자는 내용으로, 시민에너지펀드 조성, 에너지복지 기금 조성, 적정기술보급사업 확대 등의 세부사업이 전개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전을 국내외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민과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한 에너지 센터 설립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전기사업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에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 조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엇보다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3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적인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발령에서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2050은 도민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수립됐다"며 "앞으로 에너지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세부 과제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충남 전역에서 별빛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서는 도민과 시민단체, 시·군, 교육청, 도시사관현대행 등이 서명한 '에너지전환 비전 2050 공동선언 선언문'을 발표하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정환기자

2018년도 콩 보급종 추가 신청 접수중

국립종자원, 대원·선유 등 2개 품종 추가신청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변동주)에서는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8년도 콩 보급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품종은 장류 및 두부용으로 사용하는 대원콩 120톤, 선유콩 10톤 등 총 130톤이며, 공급가격은 5㎏당 2만 2580원이다.

급변에 신청한 콩 정부 보급종자는 '18년 5월 12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 받은 품종은 지역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가에서는 파종 지역에 제비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에서는 종자감염 병해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실시하여 파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은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거쳐 합격한 우량종자로 종자의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된다.

기타 정부 보급종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콩 보급종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1-6646)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녹각영지버섯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

청양군(군수 이석희)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추진하는 '녹각영지버섯'이 새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지면 주정리 홍철기씨(63)가 약 265㎡ 면적의 하우스 2동에서 재배하는 녹각영지버섯은 영지버섯 중에도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받아 1㎏당 14만원을 호가하는 고품질작목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담금주 매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충남농업기술원이 배지를 이용해 녹각영지버섯을 개발한 후 청양군에서는 홍씨가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녹각영지버섯은 배타균류간 합력이 일

반 영지버섯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나 나쁜 생활습관 등에 의해 저하된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항암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른 버섯과 달리 사슴뿔을 닮아 모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죽은 뒤에 도색이 되고 앞으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계자는 "표고 농가소득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영지와 같은 차별화된 소득작목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청양군내에서는 4개 농가만이 녹각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도로공사 고속도로 전면 차단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천~공주선 공주방향 51km지점에서 해빙기 강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로 청양 IC~서공주 IC(13.7km) 양방향을 전면차단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붕괴된 절토부는 높이 43.7m로서 약 60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도로는 20일 한국지방공회화,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자체 지방공회화 전문가 등으로 현장 안전 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결과 붕괴 원인은 해빙기 강우에 의한 빗물 침투로 지반이 약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고, 추가 붕괴 예방과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 안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흘러내린 토석을 제거하는 긴급복구를 하는데만 향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양 IC~서공주 IC 구간 양방향 통차가 상당 시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내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산내농협은 지난 20일 산내농협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조합내부조직장영농·송병배기자가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산내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 20명에게 총 1850만원 대학생 15명 1인 100만원, 고등학생 5명 1인 7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송병배 조합장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는 "원대한 꿈과 용기를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뿌리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내농협은 지난 11년간 장학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13명에게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병배기자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2월말 결산법인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및 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8년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대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인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관련서류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담당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집고를 권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우)가 20일 아산시 행복기움지원단과 충남

이날 행사에 ㈜삼인인터네셔널(대표 채홍용), 영농회사법인(주)늘만나식품(대표 권인순), 운주곰탕대표 김병관) 3개 업체가 참여해 과자, 김치, 곰탕 등 90여만원 상당의 식품을 아산시행복기움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품은 임치읍, 음봉면, 온양3동, 온양4동 행복기움추진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홍원우 아산시기업인협의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매월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천안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 발 벗고 나섰다

퇴직전문인력 비영리단체 등과 매칭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행

천안시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능 나눔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4900만 원 국비 확보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참여자)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참여기관)에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참여자는 사회 참여를 통한 성취감과 자기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퇴직전문인력의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어 윈-윈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세 이상 퇴직자 중 외국어, 사회서비스, 마케팅·홍보, 문화·예술, IT·정보화, 상담·멘토링 등에 3년 이상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이거나 국가·민간자격증 소지자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해 공익적 사회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천안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하며 참여자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은퇴자나 기관은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백석대학교 백석실버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silver.b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41-622-8360) 또는 이메일(bssilver@b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백석대학교 백석실버센터(070-7733-8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채기영기자

대덕구,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 강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회 참여 금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조몽민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을 설명하고,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공직자들이 직접 모의 사전투표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1인 7표제 및 사전투표일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태선기자

블록체인, 핵심·표준 특허 확보 서둘러야

특허출원 급증, 최근 4년간 22배 이상 증가... 표준 특허는 전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US,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18년 1월말 기준)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15년에는 258건, '16년에는 594건(미국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모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주제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18.1월말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특허출원 기준)이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나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명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며,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지난 20일 박물관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공주박물관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인문, 사회, 환경, 역사, 문화 및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공동 학술 연구와 신기술의 상호 지원, 매장문화재 보존처리 위탁 상호 협력은 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협력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교육사업도 공동운영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교육사업으로 오는 8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충남지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연구·문화시설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대학생 행정 참여제 오리엔테이션

아산시, 선문대 및 순천향대 학생 50여명 참석



아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선문대 및 순천향대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행정 참여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대학생 행정참여제는 공직을 희망하거나 연구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의 1:1 멘토링 연결을 통해 공직에서 접하는 주요현안을 연구과제에 수행해 학생들에게 책에서 배운 행정이론을 직접 실무에 응용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는 학생들의 연구결과를 현안과제 해소방안에 응용하는 관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학

기 우수학생에 대한 표창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안내를 통해 사업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했다.

지난 학기에는 인사행정 및 재난관리와 관련된 아산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 리포트주제로 다뤄졌으며, 이번 학기에는 문화행정론과 조사방법론 관련학생들이 참가해 보다 다양한 주제로 아산시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멘토로 선정해 연구 자료제공 및 자문 등 관련부서와 학생들간의 1:1 멘토링 연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새봄맞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당진시, 내달 20일까지... 마을별 대청소 연계 추진

당진시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과 연계해 내달 20일까지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한다.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환경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당진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 동안 영농철 이전에 농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수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숨은 자원 찾기 운동과 환경정결활동과 연계해 마을별 대청소 시 영농폐기물을 일제 수거에 나선다.

또한 집중 수거와는 별개로 영농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을 금지하고 농경지 주변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올해 영농폐기물 2,800톤, 농약병병 55톤 정도 처리할 계획"이라며 "집

중수거 기간에는 한국 환경공단 집계차와 시에서 운영하는 집계차 투입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동참하거나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과 단체는 한국 환경공단이 시에 매월 통보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자료에 기준해 등급별로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급별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A등급 kg당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이며, 농약병병과 농약봉지는 각각 개당 100원과 80원씩 지급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순천향대 '화평한이(華風漢藝)'로 수업효과 높여

한·중 학생들간 수업효과 높여주는 독특한 프로그램



대학가 신학기에 걸맞는 이색강좌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의 한·중 학생들간 수업효과를 높여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화평한이가 눈길을 끈다.

한·중 문화와 언어에 관심있는 재학생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학습활동을 통

해 교류할 수 있는 캠퍼스내 문화교류 및 언어학습 프로그램으로 '화평한이'의 한·중 학생들간 수업효과를 높여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화평한이가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재학생 20명과 중국인 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6시30

분부터 약1시간 30분간 진행하게 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 10주간 조별 중심으로 ▲언어학습활동(백문백답, 스피드게임, 언어비퀴즈 편지쓰기) ▲문화교류활동(부채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장보기, 필드트립 지역탐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대학 관계자는 "순천향대에는 한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도 있고, 반대로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한국 학생도 있는데 두 부류 학생들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지만 기회가 없었다"며 "순천향대 캠퍼스내 또 하나의 중국인 '공자아카데미'가 양국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학교, 2018년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선정

'도시재생에너지 통합시스템 고급트랙' 최종 선정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하에 '2018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산업의 급격한 확대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업비는 2022년까지 약 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밭대는 지난해부터 전기공학, 설비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3개 학과의 교수와 대학원생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등 19개 참여 및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도시 재생에너지 통합시스템 고급트랙'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한밭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지원, 참여기업의 애로기술해결에 나서게 된다.

사업단장인 한밭대 최원석 교수는 "한밭대는 그동안 산학협력력을 근간으로 여러 실증연구와 실무교육에 집중해 왔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과 최신 고급기술을 확보한 고급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도시 재생에너지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국가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아간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의 가치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아간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생태, 역사문화, 교양 등 총 11강좌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 무료이고 선착순 20명 내외이며, 교육과정은 4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격주로 운영된다. 특히, 아간 시민대학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환경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직장인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국립공원 시민대학 졸업자는 향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자원활동가, 명예레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립공원 관리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홈페이지(<http://taean.knps.or.kr>)로 접속 가능하고 전화번호 672-7267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중소사랑나눔재단, 2018년도 장학사업

'희망드림 장학사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내달 11일까지 2018년도 '희망드림 장학사업'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재단 설립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규모는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각 장학생 개인명의 통장으로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키워 가는 학생과 학업·예체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다.

접수방법은 중소기업사랑나눔

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최종발표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5월 중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서석홍이사장은 "희망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으로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영농정착위한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청양군, 내달 15일까지 50여명 교육생 선발 계획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영농동기부여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4월 15일까지 귀농인 영농정착 창업스쿨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촌지도기관, 연구기관 등 각 작목별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빙

해 청양군 주요 재배작물인 고추, 구기자, 토마토, 표고버섯 등에 대한 재배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관내·외 선진 농장방문 등 현장교육을 병행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현장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귀농귀촌팀(940-4740~4743)으로 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국민 First·품질 Best, 2018년 목표 매출 달성전략 워크숍 한국조폐공사는 21일 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강당에서 '국민 퍼스트(Fst), 품질베스트(Best) - 2018년 목표 매출 달성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산소방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지난 20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유관기관 등 인원 66명과 차량 8대를 동원해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해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반발 임무수행 및 지휘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온천지구대·온양3동, 행복한 주민 위한 동정순찰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는 지난 20일, 온천지구대(지구대장 오승학)와 함께 2018 행복한 온양3동 동정순찰을 시작했다. 주민·소통 협력을 통한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동정순찰을 올해도 양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실시하게 됐다.



공주소방서, 장애인 초청 소방안전체험 교육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20일 공주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과 지도교사 20여명을 초청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에 대한 이해와 대처 요령을 숙지시키고 소방서 견학을 통해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됐다.



예산경찰서, 충남청장과 소통·화합의 시간 가져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20일 오전 경찰서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열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맞이하고 현장 직원과 소통·화합을 위한 공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봄을 사색하는 눈꽃 댈인 대전현충원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교제1묘역의 비석들이 하얀 머플러처럼 눈이 쌓여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 아침부터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 애호가들이 대전현충원내 곳곳을 찾아 플래쉬를 터트렸다.



부여소방서, 신입소방사관 교육생 '현장속으로'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3월 19일부터 4월 12일 4주간 소방공무원 임용전 현장 적응성 강화를 위해 각 소방서에 배치된 신입소방사관 교육생 12명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21일부터 현장활동에 투입하기 위해 각 119안전센터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진선미 의원, 법원의 자의적 기준에 인한 신청 배제 지양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며,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한데 포괄적 배제 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관련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 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임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 사건에서는 중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고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김정환기자

예산소방서, 소방차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1일 오후 2시에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소방차량 및 경찰차 등 차량 6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재 및 응급환자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 소화 또는 응급처치가 실시되지 못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의 끝단타임을 위한 출동로 확보는 시민들의 협조와 양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자 차량정체 구간에 대해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국민 참여훈련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훈련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예산=양성업기자

흩어진 의약품 정보 한 곳에서 확인한다

식약처, 2022년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앞으로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22년까지 개별 홈페이지 또는 각각의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1단계(2018~2019)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2021~2022)에서는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전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처는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국가 필수 의약품 정보, 통계데이터 등도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는 필수 의약품 품목 및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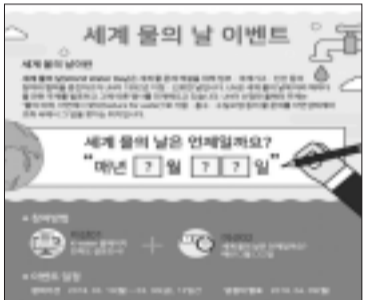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K-water '2018 세계물의날' 맞아 다양한 행사

물의 소중함과 물관리 중요성 전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매년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물의날(World Water Day)'이다. UN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2018

세계물의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물관리 중요성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올3월 한 달 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물의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K-water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물의날' 소문내기, 틀린 그림 찾기, 낱말퍼즐 등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총 3,3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공식 홈페이지(www.kwater.or.kr)를 통해 '세계물의날'의 날자를 맞추는 퀴즈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아이패드(1명), 2등 문화상품권 1만원(30명), 3

등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50명을 선물한다. 특히, '세계물의날' 당일인 22일에는 65개 K-water 사업장 인근의 수원지와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사 하천정화활동을 펼치며, 정화활동에는 K-water 임직원과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해 오염원인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 물드림캠프(3.28~29 한강 경명체, 수돗물 시음회, 블루골드 보물찾기(3.22~23, 시화조력관리단), Water Movie Festival(3.17~25, 용담댐 물문화관), 물사랑 사진 전시회(3.22 영성강문화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봉관기자

장평청남파출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안전 교육



청양경찰서 장평청남파출소(소장 이창진)는 지난 20일 관내 미당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과 경찰관 직업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중구,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합동소방훈련 실시

21일, 세이백화점 화재발생 가상훈련과 주민생활안전 교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화재대피 훈련과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구, 남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대표 다중이용시설인 세이백화점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다.

화재발생 시 건물 내 직원과 고객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와 구급차 긴급출동, 화재 진압, 부상자 수송 순으로 참여자 모두가 실제 재난 사태를 임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됐다.

또한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민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큰 건물에

서 불이 나면 정말 큰 재난으로 이어질텐데, 오늘 훈련처럼 하면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했던 여러 재난사고를 교훈삼아 평소 생활안전에 유의하고, 가 가정과 건물의 비상대피로를 알아두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 등 실제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성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아산소방서,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제공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 안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아산=리량주기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 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와 상담은 아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 041-538-0261로 하면 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문복지관, 민·관 합동 소방훈련



진각복지재단 산하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21일 대전시 서구청, 대전서부소방서, 대전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 소방훈련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사건에 대비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건물 내 이용자 대피와 화재 시 행동요령, 긴급차량 방독면 착용 교육 등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소방훈련은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특히 인명 대피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법과 실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했다.

김성구 관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중장년 취준생 46.3% 나이 인한 편견 때문 힘들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 점검 실시

이산교육지원청, 분야별 기술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

<벼룩시장 구인구직> 설문조사... 중장년층 구직자들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 요소 '고용안정성'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재취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로 인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퇴직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5%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를 꼽았다. 이어 퇴사 압박을 받아서(20.4%), 휴식이 필요해서(16.9%),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6.7%), 입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

의 어려움(6.5%), 상사, 동료와의 관계 악화(5.7%) 등의 답변도 있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76.4%)이었으며, 자아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11%),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족의 권유 또는 압박(3.4%), 주변, 사회의 시선 때문에(1.7%) 등 타의로 인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재취업 구직활동 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절반에 가까운 46.3%의 응답자가 나이로 인한 편견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라는 답변도 26.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취업 관련 정보 수집의 어려움(14%), 경험·경력 부족(10.8%) 등의 답변도 있었다. 면접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답변도 2.8%로 나타났다.

이러 재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불안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1%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꼽아 앞서 구직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상황'을 꼽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구직기간(28% 역시 불안요소로 작용했으며,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져서(19.3%), 거듭되는 실패로 인한 자신감 하락(10%), 주위 시선에 대한 부담감(3.6%) 순으로 이어졌다.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고용안정성(26.3%)이었으며, 급여(25.7%), 근무환경, 복지(22.1%)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재취업 시 희망 직종을 묻는 질문에는 42%가 재취업만 할 수 있다면 직종은 상관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재취업을 위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8%가 구인구직 사이트 탐방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직업 앞선 기관 활용(28.2%), 취업박람회 등 취업 관련 행사 참석(17.6%),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14.6%) 순으로 이어졌으며, 인맥을 활용한다 5.7%는 답변도 있었다.

이정복기자



이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3월 해빙기를 맞아 분야별 기술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건축사)와 합동으로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1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해취약시설로 분류한 초·중·고 15교 등 총 22개교 34개소를 대상으로 붕괴 및 화재위험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비탈면보강 1교 및 정밀안전진단 1교 등 긴급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안전 위해요소를 해소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소재 개설 건축사

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공사현장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심훈 교육장은 "학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시설이 최우선이라며 수요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 예방 보완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 원당중, 1학년 대상 의사소통교육과 자원봉사 기초교육 당진 원당중학교(교장 정용섭)는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2주에 걸쳐 주 1회 월요일 1교시, 본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강사를 초빙해 의사소통 교육과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여고, 교육공동체 다모임 공감토론회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통한 행복한 학교로 변화 위해 개최

홍성여고(교장 심상룡)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550여명이 대강당에 모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로의 변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다모임 공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감토론회는 대교리 교정으로 이전한 홍성여고의 교육 3주체가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교육공동체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때로는 사뭇 민감하고 진지한 학생들

의 요구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긴장되기도 하였으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건의나 제언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어 학생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학부모들 또한 "학부모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행복나눔학교 담당 교사들이 홍성여고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과 같은 건의사항을 학교에 전달했다.

홍성=김정환기자



상반기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의 날 운영

청양수정초, 학부모 참여 수업 공개 및 급식 공개

수정초등학교(교장 류동훈)는 지난 20일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학부모들은 학교를 찾아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참여 공개수업, 급식 공개에 참여하며 교육사상 실천에 마음을 함께 했다. 이 날은 '놀고·만들며·꿈꾸는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1년의 일관 교육과정 안내로 진행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e학습터 "온라인에서 만나요"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새로운 브랜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영희)은 기존 '충남사이버스쿨'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새로운 브랜드인 '충남e학습터'를 통해 충남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최신 교육과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21일 밝혔다.

'충남e학습터'는 홈페이지(http://cls.edunet.net/chungnam) 또는 에듀스충남→'충남e학습터'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년, 학습과정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과목·주제 등을 등록(수강신청)하면 PC 및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패드) 등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충남e학습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차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대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에 대한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며,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기반의 개념 및 주제별 콘텐츠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 해볼 수 있도록 평가콘텐츠를 제공하며, 평가분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문항 해설도 함께 제공한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새로 개통한 '충남e학습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학년제 사이버학습 활용 모델 개발·적용, 교실 수업과 연계한 e학습터 활용,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활용 등을 담은 보고서, 사이버학습 운영지원단 구성, 온라인학습 활용 안내 및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학교 현장지원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예산교육지원청, 2018 초등 새내기 학부모 교육

행복한 꿈을 가꾸는 자녀로 키우자 주제로 강연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제1회의실에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50명 이상 참석하여 2018 초등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한 꿈을 가꾸는 자녀로 키우자'를 주제로 강연한 관동초등학교 송수영 교장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

복하지는 않으나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의 아이들과 우리 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참여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수십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10대명을 제시해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가꾸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양성범기자

금산여중 '몸&맘 케어 또래약국 운영'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하기 위한

금산여자중학교(교장 민병희)는 20일~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을 증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몸&맘 케어 또래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상담실에 찾아오지 못하는 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또래상담을 하고 또래약국 개설로 또래상담을 활성화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또래약국은 상시적으로 매일 1, 2, 3주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실시되며,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친구의 마음을 살펴 '우정이 깊어지는 약', '고민이 사라지는 약', '웃음과 희망이 생겨나는 약'을 처방하여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금산여중 또래상담자 최윤서(3학년) 학생은 "또래상담자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소중한 우리를 발견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한 우리를 만들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양영석)는 21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동창회장,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유성생명과학고, 반려동물관 개관식

바이오 동물산업 전문직업교육 기반 시설 마련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양영석)는 21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동창회장,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2017년 7월 12일 반려동물관 신축 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 21일에 지상 2층, 연면적 967.83㎡ 규모로 준공했다.

김정환기자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닷 올려

세종시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토요반 개강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지난 17일 고등학생 대상 토요반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새롭게 시작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화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개강 강좌와 폐강 강좌를 확정했다.

또한, 15일까지 폐강 강좌 학생들 중 변경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했다. 접수 결과, 고등학생 대상 공동교육과정 I은 20개 강좌, 22개반, 279명이 신청했고, 공동교육과정 II는 10개 강좌, 107개반, 1,440명이 신청했으며, 중학교 3학년 대상 공동교육과정 II는 10개 강좌, 79명이 신청했다.

고등학생 대상 공동교육과정은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수요일 저녁반으로 구성됐으며 토요일반의 경우 17일, 수요일반의 경우 21일 각각 개강했고, 중학교 3학년 대상 공동교육과정은 화요일 저녁반으로 운영되며 20일에 개강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제15기 입학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오후(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정부, 보건의로,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 건

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설되어 지금까지 55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수료했다. 송병배기자

● 특 정 ●

태안고등학교 교육과정설명회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22일 오후 7시에 태안고 아카데미홀에서 열리는 『태안고등학교 교육과정설명회』에 참석.

2018학년도 학원관계자 연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22일 오전 10시 세종문화에솔회관에서 열리는 『2018학년도 학원관계자 연수』에 참석.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김석환 홍성군수 = 22일 오후 2시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에 참석.

결핵 예방·발견·치료 '온합'

충남도가 국내 감염병 중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결핵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올해 19억 원을 투입, 결핵환자 발견과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도 결핵환자 접촉 가족 등 결핵 의심자에 대한 검진비, 전염성 결핵환자 입원 명령에 따른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 결핵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21명의 결핵 관리 인력을 배치,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력해 도내 중·고교생 10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도 펼친다. 결핵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중점 실시한다.

도는 21일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천안시, 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연 이날 캠페인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했고, 결핵 예방 동영상 상영, 기침 예절 캠페인, 상담 코너 등도 운영했다.

결핵 예방 주간(3월 19~25일)에는 보건소, 지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도내 학교와 광장, 터미널 등에서 결핵 인식 향상 및 예방 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 결핵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의 30%는 감염돼 잠복결핵이 되고, 잠복결핵의 10%는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 검사를 받고, 일상 생활 속에서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결핵은 꾸준한 치료·관리하면 완치는 질병으로,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농업 생산자-식품·외식기업 연계 돕는다

국산 농산물 사용 활성화 지원

충남도가 농업 생산자단체와 중소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는 '2018년 농업과 기업 간 연

계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과 △중소 식품·외식업체를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은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10농가 이상)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교육, 농산물 품질관리, 시설·장비 임차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지역 생산자단체(10농가 이상)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안정성 검사, 제품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신청기간은 4월 23일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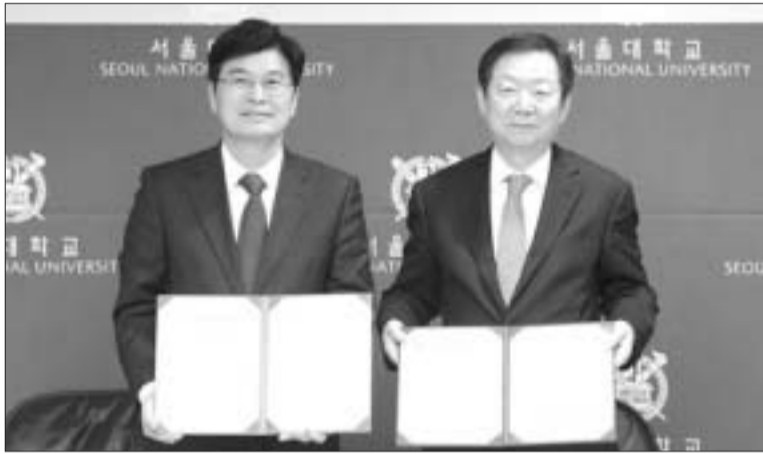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dungnam.go.kr) 행정→도정광고→광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기업 간 연계의 실질적 성과 창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농가소득 증진 등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식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서울대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정책 발굴·컨설팅 및 정책전문가 양성 등 상호 협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1일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에서 서울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이춘희 시장과 성낙인 총장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세종시는

서울대의 교육·연구 시설 및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제공 ▲서울대는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컨설팅 및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제연구기관 등의 이전으로 행정수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서울대와 이번 협약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새 시대의 세종시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세종=김정환기자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예산군, 3월 말까지 학생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예산군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진행된다. 정비대상은 음

란·폐쇄 내용의 광고물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단속하고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 철거도 추진한다. 또한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예산=양정임기자

진로체험시설·주민편의시설 설계공모 시행

행복청, 4월 중 시행... 하반기부터 본격적 설계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가칭)「장 의진로교육원」과 복합주민공동시설인 「나성동(2-4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에 대한 설계공모를 4월 중 시행한다고 21일(수) 밝혔다.

우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학령인구 비율이 최고인 도시인데 반해, 그에 걸맞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중등교육 직업탐색과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의 공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는 행복진로교육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주요 내부시설로는 진로도서관,

소공연장, 진로상담실, 어린이체험관, 직업체험관, 진로수업실, 진로교육연구실, 동아리 세미나실, 천문시설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설기획 및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될 세종시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진로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성동(2-4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도 창의진로교육원과 함께 4월 중 설계공모를 시행하며,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입주시기에 맞춰 완공하여 사용도 록할 계획이다.

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이 건립되는 부지는 인근 아트센터, 박물관 조성, 역사공원, 체천 등이 연결된 문화·복지 등 주변 교육·문화·주거·공원·상업시설과도 연계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행복청은 그동안 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 건립의 다양한 경험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관 위주의 설계

에서 벗어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주민공동체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설계공모 기획단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하기 위해 '공동체 만세(Viva! Community)'라는 주제로 '지역친화', '효율적 기능 구성', '스마트 환경구축'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공간구성과 동선체계,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한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는 외관만 화려한 디자인 제철이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디자인과 기능 모두 충족하는 우수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예정인 2개 사업 일정은 4월 중 설계공모 시행 및 6월 중 당선작 선정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세종시 주말농장 텃밭 분양

농촌 체험 기회 제공... 여가활동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말농장 텃밭을 분양한다.

이번 텃밭 분양은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전동면에 위치한 13개 농장으로 도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생태교육 및 환경적 가치를 심어주어 농산물 생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텃밭예공은 1가구당 165㎡(5평)~198㎡(6평)로 840여 가구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상단 주말농장 신청패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세종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분양수량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아이디 1개당 1개씩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말농장 이용 시민에게는 기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장개장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44-301-2711~2715)으로 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 봉사단 발대식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홍성군SSN)는 지난 19일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좋은 이웃 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좋은 이웃들은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는 민간협력 자조사업이다.

홍성군SSN은 2018년 좋은 이웃 사업에 공모하여 총 2,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홍성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홍성군SSN 회원들이 이번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좋은 이웃 봉사단을 구성해 발대

식을 가지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장목 회장의 초청특강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런 규 홍성SSN회장은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공공복지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좋은 이웃들 사업은 2018년 현재 전국 10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심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세종시 '시민 무궁화 키우기' 교육

26일부터 1500여명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6일부터 세종 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무궁화 키우기 교육'을 진행한다.

시민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시민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희망 접수를 통해 시민 17기씩 62명씩 초등·중·고 8개교 1,457명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함께 무궁화 화분 키우기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의선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많은 세종 시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친

밀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무궁화도시 조성 시책에도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키운 화분은 오는 8월 열릴 무궁화 화분 경연대회에 출품할 수 있으며, 우수작은 소정의 시상금(수상작은 시에 귀속)과 함께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세 종 축제(8.15~8.16)' 기간 중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무궁화 화분 경연대회 접수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무궁화 TF팀(044-300-4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NAVER logo and search bar with tex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동정

심의위원회



이창규 아산시장은 권한대행=22일 오후 2시, 시청 상 황실에서 열리는 양성평등 심의위원회에 참석.

축하기념 공연



김홍장 당진시장은 22일 오후 7시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축하 기념 공연에 참석.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이종운 당진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석문면 보덕사 일원에서 열리는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한상기 태안군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군 문화예술 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음봉면 봄맞이 대청소 실시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순임)는 지난 20일, 봄을 맞아 음봉면 삼거리 벽화 주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음봉면 삼거리 벽화는 2015년 충남도와 아산시의 매칭 사업으로 낙후된 음봉면 소재지를 지역 사업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이순신 마을 등 4개의 주제로 꾸민 곳이다. 대청소에 참여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깨끗한 음봉면을 만들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원 음봉면장은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깨끗한 음봉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 (042)538-3030

태안군 도시개선 사업 '급물살'

충남도 주관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에 2개 부문 선정 2억6천7백 만원 확보

태안군이 충청남도가 주관한 '2018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에서 '스마트 공원' 부문과 '도로·교통표지' 부문에 각각 선정돼 도비 2억 67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저성장 시대와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스마트 공원 ▲짚지 주차장 ▲도로·교통표지 등 3개 부문에서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태안군은 어린이 안전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도민

체전에 대비한 도로표지판 개선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2개 부문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태안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동문리 431번지 일원 총 2,095㎡의 면적의 군유지에 도비 보조금 2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투입, 비행기틀 테마로 한 어린이 공원을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포켓쉼터와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장 등을 배치하고 느티나무와 사철나무, 잣나무 등의 나무를 심어 지역 주민에게 휴식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원에 인접한 도지에는 923㎡ 면적의 주차장을 함께 조성해 공원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표지 개선사업의 경우, 군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단 등 방문단의 불편 해소를 위해 태안읍 일원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 등 6개 노선 총 15개소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LED 발광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도비보조금 6,700만 원과 군비 등 총 2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정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작공

에 들어가 도민체전 개최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야간 및 악천후 시 표지판 시인성 확보가 용이해져 사고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2개 공모 사업의 보조금이 이달 말 교부되면 곧바로 군비를 추가 확보해 착공에 돌입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히 연관된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변천사

500여 년 전통, 농경·해양·난장 문화 집약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국가 무형문화재 제75호)가 올해 축제에 쓰일 큰 줄 제작도 마무리되면서 5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기지시줄다리기 변천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줄다리기 문화는 벼농사 재배권 마을에서는 대부분 행하지만 민속놀이지만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 농경문화와 해양문화, 여기에 난장 문화가 접목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여타 줄다리기와는 차별화된다.

기지시(機池市)리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줄뜰을 보관하는 연못이 있는 시장마을이었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는 지역의 농경문화와 시장문화, 어촌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이중 기지시 시장이 발달하면서 내포지방의 교통 요지였던 기지시에 난장을 세우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줄다리를 했다는 설이 시장문화가 결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이는 줄인 얇줄과 수줄은 각각 두께 20톤, 길이 100미터, 직경 1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기지시 시장이 예덕 보부상이 서울로 오가던 길목에 있었던 탓에 300여 년 전부터 한 달에 장이 12번이나 섰을 정도로 기지시 줄난장은 호황을 이뤘다.

줄 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농경사회에서 작게 만들던 줄은 참여인원이 늘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인근 안섬 지역에서 맞을 만들던 방식도 도입되면서 줄뜰을 이용해 큰 줄을 만들게 된다. 다른 지역의 두 줄 쪼기 방식과 다른 당진만의 세 줄 쪼기 방식이 탄생한 배경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높다

이용자 평균 만족도 93.4%

당진시립도서관이 지난달 실시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3일부터 13일 간 도서관을 이용한 당진시민 554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경험과 장서 이용 부분, 도서관 직원 부분, 시설 부분, 문화프로그램 부분, 온라인 이용 부분, 방문 편의성, 전반적 만족도 등 21개 문항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1%가 여성으로, 남성(29%)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도서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40

대가 전체의 54%로 가장 많았고, 방문 목적은 도서 대출과 반납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3.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p 상승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항목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항목에서 각각 99%, 98.7%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자료 열람 정보검색 만족도(71%), 방문 편의성(84%) 부분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동 공간 부족과 휴게 공간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설문으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년도 도서관 정책 수립에 적

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새봄맞이 시가지·도로변 대청소 실시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쾌적한 생활환경 조 위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새봄맞이 시가지 및 도로변 대청소기간을 운영

한다.

군은 봄을 맞아 주택밀집지역 등 시가지 및 도로변에 쌓인 미세먼지와 겨우내 쌓포한 소금 및 모래를 제거해 먼지 없는 깨끗한 도로 환

경을 조성하고자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매년 도로에 쌓인 분진 및 미세먼지를 신속히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살수 기능 및 진공청소가 가능한 노면청소차량 16톤(10㎡)을 임

차해 시가지 및 주요 도로 등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을 제거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청소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해 도로의 주정차를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청양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23일까지 국민생활 안전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함께 규제개혁의 범위를 기존 생활관련 규제에서 기업 활동 규제 및 국민안전 규제로 확대·발굴하고, 국민과 기업이 생활속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개선해나가는 국민 디자인 방식을 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 기업, 단체의 생활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을 발굴·개선하고자 민생규제 혁신 과제 7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제출건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분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의 ▲취업·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와 기업 활동의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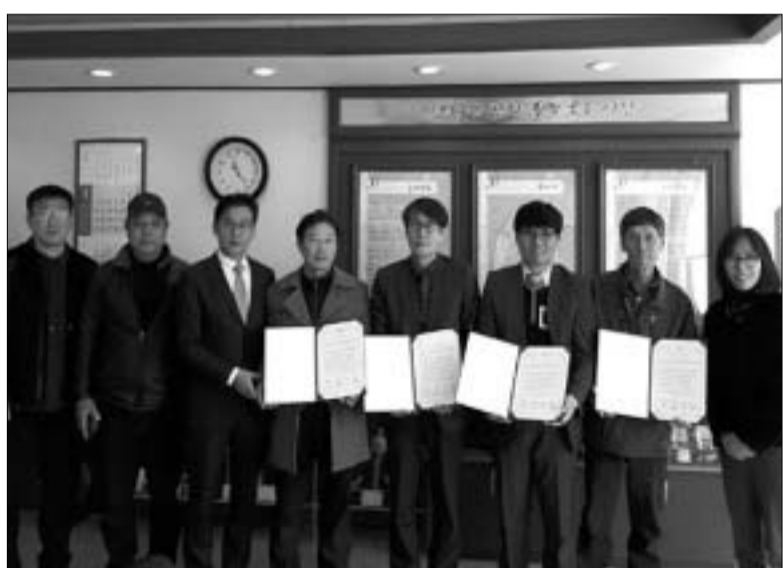
접수된 과제는 행안부 및 관계부처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평가를 받는다. 심사는 과제내용의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최우수상 1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는 시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인주면-(주)코리아에코21-아산비전봉사단과 후원협약 체결



아산시 인주면 행복기움추진단(단장 정광희)은 20일 (주)코리아에코21(대표 김갑선, 아산비전봉사단 이사장 김길진)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및 청소·소독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 협약으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배·장판 및 청소·소독 등 필요한 부분을 년 2회 맞춤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정광희 단장은 "우리 관내에는

거동불편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유로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년 2회 맞춤형 지원을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후원기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코리아에코21은 아산시 사회복지기업협의회 회원기관으로서 어려운 가정의 청소, 소독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생신축하 행사 및 바자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아산비전봉사단은 아산시 학생봉사단과 연계해 독거어르신 집수리 및 도배, 장판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열람 실시

내달 3일까지 군청·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태안군이 내달 3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와 건물가격 모두가 포함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태안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된 열람통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

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군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제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

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국제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궁금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한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 버림으로 공인의 미학 실현 한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 충청지부(회장 연미옥, 이하 수납협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재능기부로 정리수납이 필요한 관내 독거노인가정에 정리수납을 실시했다.

우리/동네

“장애인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논산시보건소, 장애인 일자리 참여 지원사업 꿈이름 ‘호응’



청소년 위한 건전한환경 조성 ‘앞장’

천안시, 새 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합동캠페인

천안시가 새 학기를 맞아 20일 신부동 일대 학교 주변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에서 ‘민·관·경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 단속반은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단속, 거리배회 청소년 조기귀가 유도, 청소년 거리상단,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등 지도·점검활동을 진행했다.

최광용 체육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며 “합동단속과 캠페인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청소년의 일탈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안=채기병기자

‘행복한 귀농귀촌 서천’으로 오세요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정책 적극 홍보

‘행복서천 인구 늘리기, 귀농하기 좋은 1번지’ 알리기에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적극 나선다.

군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8년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취업 박람회’ 참가에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18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유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천군이 홍보하게 될 귀농유치활동에는 귀농정책의 기본이 되는 영농활동에 대한 상담은 물론 서천군의 차별화된 이주단계별 원스톱 지원정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포함된다.

특히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선배 귀농인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정책에 대한 도식화된 설명과 더불어 귀농귀촌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특산물을 함께 전시 및 홍보해 박람회 방문객들의 영농창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김태선기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추가 설치

계룡시, 10개소 추가설치...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제공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해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BIT)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버스정류장 23개소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버스정류장 10개소에 추가로 안내단말

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이용객들이 버스 도착시간과 시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시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계룡시의 다양한 시정정보 표출 및 노선정보, 주요뉴스 및 날씨, 선불교통카드 잔액조회 등의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계룡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정확한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동고동락(同苦同樂) 공존체 논산 조성을 위한 건강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지원사업인 ‘꿈이름’을 운영한다.

‘꿈이름’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역량을 증대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습득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로마테라피스트 DIY 강사 자격



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까지 ▲아로마 연구코칭·영양코칭 지 주2회(월·목) 총 25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현원료의 이해와 배합비율 ▲비누·주방세제 만들

기 ▲이토피 연구코칭·영양코칭 만들기 등 아로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교육 제품평가 및 피드백을 거쳐 자격증 취득은 물론 보건기관 건강관리 및 공공근로와 연계해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꿈이름’을 통해 대상자들의 성취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동고동락(同苦同樂)논산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방문간호팀(041-746-8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 시동

호국충절 고장 3·1운동 정신 계승해 민족회합 중심지로 우뚝



천안시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일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석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 쉬는 호국충절의 대표적인 고장이자 역사

적 사명감을 간직한 도시이다. 그동안 시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아우내봉황제, 유관순 열사추모제, 삼일절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지원해왔다.

또 거례의 일을 세우고자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자리하고 있으며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열사의 흔적과 뜻을 기리기 위한 유관순 사우, 유관순 추모각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과 당위성을 기반으로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념사업을 관 주도하 아닌 각계각층의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천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가칭)을 구성 중이다.

추진단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국가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각종 국비 지원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천안이 분단극복과 민족회합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천안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선조들의 불굴 정신과 민족의 얼이 담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천안=이종호기자

봄내음 가득한 민들레 서천 농가 웃음꽃 피우다

쌈채용 토종민들레 특화작목으로 육성 농가 새 소득원 자리매김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서천 해풍을 맞고 자란 민들레가 농가소득의 효자 작물로 떠오르면서 서천 지역농민들에 활력을 주고 있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전국 쌈채용 토종 민들레 출하량의 50~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 전량은 농산물시장에 공급되고 있

다. 재배면적 6ha에 6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은 노동력으로도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고령농업인의 새로운 소일성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내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해오던 민들레를 2014년부터 권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해 생산단지화 규모화 및 조직화하고 시설재배 도입, 브랜드개발, 표준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최고 품질의 민들레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서천의 비인면, 서면 일대의 민들레 재배단지는 일 년 내내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며 재배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재배기술력이 더해져 잎이 부드럽고 특유의 쌈쌉한

맛이 일품인 민들레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시설재배의 경우 2월부터 조기출하로 농가수취가격이 향상되고 출하량에 대비 할 수 있으며 상품성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가격은 상자 당 12000원~15000원 사이로 주 출하시기인 3월~4월 가격에 대비 50%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출하돼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세현 민들레 작목반장은 “10년 동안 토종민들레를 재배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별, 증식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축적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유통기간을 연장시켜 전국 최고의 민들레 생산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여군 등하교택시 학생·학부모·택시업계 일석삼조 효과

버스요금(1100원)으로 택시 지원... 지난해 총 110명 학생 혜택



부여군에서 시행한 등하교택시 확대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택시업계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등하교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등·하교가 불편한 부여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버스요금(1,100원)으로 택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감소,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에는 수익 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등하교택시가 운영되기 전 농촌 오지의 경우, 버스 승강장까지 1km 이상을 걸어 나와야 했고, 버스 시간대가 맞지 않아 첫 버스를 타도 지각을 하는 등 열악한 교통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지난해 3월~12월까지 등

하교택시를 운영해 상반기 52명(등교13명, 하교39명), 하반기 58명(등교14명, 하교44명) 등 총 110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택시는 1일 21대를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의 야간자습 시간이 버스가 끝난 오후 10시까지여서 야간자습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설차량이나 환승이 필요 없고,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한 등하교택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리고 있다.

등하교택시는 매 학기별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부여군에서는 대중교통 시간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택시 1대당 3~4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부여=이정복기자

통정

도술아카데미 특강
구본영 천안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봉서홀에서 개최되는 3월 도술아카데미 특강에 참석.

YBPULSE 음악너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오후 7시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공감프로젝트 ‘YBPULSE 음악너니다’에 참석.

제2산업단지 합동협약식 행사
최홍묵 계룡시장은 22일 오후 2시 시청 상강실에서 열리는 계룡 제2산업단지 합동 협약식 행사 참석.

간담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2일 오전 10시 군청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6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참석,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자살예방 교육
이용우 부여군수는 22일 오전 10시 부여문화관에서 열리는 공직자 자살예방 교육에 참석.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계룡시, 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예방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2일 비산면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합동 단속반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각종 공사의 증가와 더불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 등 체감 대기질 악화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굴착, 굴착, 절·성토 작업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면지 발생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 비산면지 배출시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의 비산면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합동단속반과 계룡시는 점검결과 비산면지 억제시설 설치, 필요한 조치 미 이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계룡시는 합동점검 후에도 전 공사장에 대해 수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비산면지 발생 억제 및 저감 유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동정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입학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22일 오후 2시 농업회관에서 열리는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입학식에 참석.

정부예산확보 정책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22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정책간담회에 참석.

서산시립합창단 위촉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시청실에서 열리는 서산시립합창단 위촉식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예천 주공2단지 시민공원에서 운영되는 따뜻한 밥치를 방문, 오후 3시 고북면 가구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가구리 마을학교 개강식에 참석.

성공귀농·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촌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8 성공귀농·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고자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3개 기관이 후원하는 전국적인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귀농귀촌 정착에 대한 효과적 홍보 기회로 판단, 귀농귀촌 관련 상담 요원과 공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인 귀농인협의회원 50명을 참가시켜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와 사례 상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선배 귀농·귀촌인이 성공 및 실패 경험담과 농업에 대한 장영 노력 등 1대1 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지활동을 벌여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의 관광자원과 공주알밤, 알밤한우 등을 홍보하고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35여종을 전시 판매하는 등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고 공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귀농귀촌박람회에 적극 참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홍보 총력

“축산업 유지·발전 계기로 삼을 것”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

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6

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공주시청 허가과에 제출하면 되며, 9월 24일까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기간 내에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시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축사 유형별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적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원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돕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이번 이행기간 부여는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주요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순조

996개소 점검완료 76%진척... 다음달 13일까지 마무리



금산군이 관내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하고 있는 안전대진단 사업이 순조롭다.

군은 지난달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차적

보고회를 통해 기관별 안전진단 우수사례 전파,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16일 현재 노유자시설, 산사태위험지역 등 전년보다 660개소가 증가된 1309개소의 주요시설 중 지난 16일 기준 996개소에 대한 점검(76%)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적 관리하고 보수·보강 등 대책을 마련해 형식적 점검을 탈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진단에 나서고 있다.

신기영 부군수는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군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주연기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524억 원 신청

보령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 열고 5개 분야 110건 확정



보령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분과별 심의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10건, 524억 원을 신청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농산분과 6200만 원 ▲축산분과 가축분뇨처

리지원 19건 10억4800만 원 및 조사료생산 경영체 정비 지원사업 3억 원 ▲산림분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 7건 6000만 원 및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82건 4억 7000만 원 등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사업홍보를 통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았고, 심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

별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할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충청남도 정책심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회 의결 후 내년도 사업비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시는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합리·타당성 논리 발굴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결핵예방 인식개선 앞장

금산군보건소(소장 이화영)는 결핵예방주간(3.19~3.23)을 맞아 '결핵없는 사회! 예방GO'를 주제로 20일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시작으로 우체국사거리를 경유하는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결핵예방의 날'은 독일의 세균학자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1883년 3월 24일을 기념하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이 날 캠페인은 홍보물품(물티슈, 파스 등), '결핵 바로알기'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리플릿을 배부하며, 결핵예방의 중요성 및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의 질병이 아닌 현재 진행형 질병으로 일 년에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매년 35,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비말감염으로 기침 등에 의한 미세한 침 방울이 배출돼 이것을 들이마심으로 감염되며 밀접접촉자 및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결핵예방을 위해 2주이상 기침을 계속하면 결핵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고 당부했다.

금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지원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 제공

서산시는 오는 6월 26일과 28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교육장은 천안에만 위치하고 있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장 집합교육이 가능한 시청 대회의실을 임시교육장으로 활용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뤄져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주시,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민 알권리 충족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공주시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했다.

재난관리 실태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과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 조치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사용현황, 현장조치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현황,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 총 14종이다.

재난관리실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주시보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윤도영 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공주시의 모든 역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도심 속 생활원예교육

보령시는 생활원예를 통한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생활원예 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생활원예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 기수마다 1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며, 꽃을 통해 정서순화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유리용기 속에 식물을 식재하여 주로 광이 잘 드는 거실의 장식장이나 테이블 위에 놓아 관리할 수 있는 테라리움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또 오는 4월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중부지구지소에서 진행되며, 봄꽃을 활용한 디스기든 교육을 실시한다. 디스기든은 접시나 쟁반 같은 넓고 얇은 화분에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이거나 분경을 꾸며 감상하는 생활원예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중부지구지소로 전화(☎930-3395)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령=김태선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현대. 박정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n71456@hanmail.net

1 원형정적 아름다움
2 난방이 편리
3 아름다움

현대식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Modern Traditional Houses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30분)



마인장과 화영은 일상을 차로 친 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파도야 파도야 (KBS2 오전 9시00분)

미진(노홍하)의 프로포즈와 창식(신우재)의 적극적인 제안에 정훈(장재호)은 고민에 빠진다.

케이블 영화

▲콘스탄틴 (OCN 오후 5시20분)

인간의 형상을 한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가 존재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타고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숨, 담배에 찢어 살면서 계속되는 전투에 지쳐만 가던 콘스탄틴. 그런 그에게 어느 날, LA 강력계 소속의 여형사 안젤라(레이첼 와이즈)가 찾아와 쌍둥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세계와 지하세계를 모두 경멸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은 악의 세력이 집결한 악마의 세계를 구원하는 이야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OCN 5:50 드래곤 블레이드 8:2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2 12:20 작은 신의 아이들 15:00 대결(2016) 17:00 콘스탄틴 19:20 부산행 21:50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스포츠·레저

MBC 스포츠플러스 11:30 2017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하이라이트 12:30 <당구스페셜> 2018 세계 컵 3쿠션 당구 선수권대회 최종 14:00 2017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하이라이트 15:00 2018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 미디어데이 16:30 <당구스페셜> 2018 세계 컵 3쿠션 당구 선수권대회 8강 17:30 2018 K리그 G&S!

뉴스·다큐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문의 시사탐방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음악·애니

MBC 뮤직 7:30 거침없이 하이킥 8:10 음악앨범 9:10 주간아이돌 10:10 전지적 참견 시점 11:50 가자기 컴뱃 12:30 Show Champion 14:00 주간아이돌 15:00 순위의재구성 16:00 라디오스타

스포츠·레저

MBC 스포츠 11:30 2018 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하이라이트 13:00 2017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6:10 2018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하이라이트 17:00 17-18 도드람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18:45 17-18 도드람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21:00 2018 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뉴스·다큐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포트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포트 13 15:40 부자권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황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판 21:00 대박 천국

음악·애니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겟메카닉 시즌 9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엘미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 괴물가방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자 버스타 17:00 포켓몬스터 섀몽 18:00 베이비레이더 버스트

음악·애니

JEI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9: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10:00 변신자동차 토트 12기 11:00 출동! 슈퍼왕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뮤지컬 13:00 치랑치랑 시크릿 쥬쥬 11기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명연정사 16:00 농지마정신출 17:00 예술로 토트

주변) 밑에 들어가 일하기로 결정한다.

▲전생에 웬수들 (MBC 오후 7시15분)



난, 당신만보고 갈 마음의 준비 됐어요. 고야(최유영)는 지식(구원)이 사고가 났음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애를 태운다.

▲열한시 (채널CGV 오후 10시30분)

내일 오전 11시로의 시간 이동에 성공한 연구원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24시간 동안의 CCTV 속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추적하는 영화 <열한시>.

시간 이동 프로젝트 연구원 우석(장재영)은 투자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중단을 통보 받는다.

24시간 후의 내일, 모든 것은 달라져 있다. 유일한 단서인 CCTV를 확보해 현재로 돌아온 우석과 영은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해 감춰진 24시간을 추적하던 중 CCTV 속에서 연구원들의 죽음을 목격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산무궁화, 24일 안양과의 홈경기 열려

오는 24일 '축구 보러가는 날인가 봄' 테마로 한 다양한 행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박성관) 따뜻한 봄의 초입길을 맞이하여 오는 24일(토) 오후 5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석한 선수들의 '사인 유니폼'까지 획득할 기회까지 제공한다.

하프타임에는 다양한 경품이 담긴 사다리 타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팬들이 군침을 흘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상화대 앞 광장에서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인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매치데이 당일에 공개되며 사인회 참여 팬 선착순 100명에게는 사탕을 증정하고 사인회에 참

tN '나의 아저씨' 메인

포스터 전격 공개



tN '나의 아저씨'가 21일 첫 방송에 앞서 아저씨 삼형제 이선균, 박호산, 송세벽과 이진은(아이유)의 따뜻한 찰나 담긴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한편 '나의 아저씨'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

3월 도서관 사람책 '요리분야' 열람자 관심 속 성료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지식과 정보 공유하고 해결 시간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관장 김용진은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에 문헌정보동 1층에서 식문화 분야 도서관 사람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탈리안 셰프 최상현'은 현재 주얼마노(대전광역시 소재) 5개 지점을 직접 운영하는 요리사로 개인 경험과 준비해야 할 과정,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 등 이 분야의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

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야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람책 열람서비스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www.al.or.kr)이나 전화(730-7733)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함께하는 그림책 독서코칭'

부여도서관, 학부모 20명 대상... 프로그램 개강



부여도서관(관장 김영심)은 20일 오전 10시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누구나 함께하는 그림책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누구나 함께하는 그림책 독서코칭'은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운영하며, 앞으로 계절, 생활, 자연, 이웃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그림책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사랑의 쌀 전달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김동원 총재는 3월 21일 사단법인 물방울에 사랑의 쌀 30포를 전달하는 봉사를 펼쳤다.



주월드홈닥터 김규락 회장, 공주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는 21일 총장전견실에서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김현호 대외협력본부장, 남수중 대외협력본부장, 신경현 대외협력과장,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이용근 교수, (주)월드홈닥터 김규락 회장, 이윤희 전무, 이제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



예산군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제5기·제6기 위원장 이·취임식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일 봉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봉산면 행정협의회의원, 마을 이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제6기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사다리 밴드, 관저1동 어르신께 바베큐 통닭 봉사 실천 대전광역시 봉사단체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 이정재)는 21일 오전 9시~오후 1시 서구 관저1동주민센터에서 관저1동 200분의 어르신들께 즉석에서 구운 바베큐 통닭 봉사료 사회적 효행을 실천했다.



건보공단 대전유성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캠페인 송영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왼쪽 세번째)과 직원들이 21일 대전유성온천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캠페인 실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탕평면 행복키움, 찾아가는 사랑의 물품 나눔 아산시 탕평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송현순)은 지난 20일, 아산시기초푸드뱅크와 유기농가 식당에서 후원(백미 10kg) 받아 사레관리대 대상 및 저소득 독거어르신 30가구를 방문해 물품 전달과 함께 안전을 살피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전대 물리치료학과 학생 4명 공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확정 관악기 이용한 호흡훈련 프로그램 효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최근 물리치료학과 4학년 김병수(25·사진)와 4인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논문이 국제저명 학술지인 Medical Science Monitor (SCIE, IF:1.585)에 게재가 확정됐다.

논문의 주제는 'The Effect of Respiratory Training Program

using the Wind Instrument on the Cardiopulmonary Function, Endura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omen'으로 호흡훈련과 관악기연주로 구성된 호흡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호흡기능과 운동수행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병수 학생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복지관을 찾을 때 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즐거 부르던 오카리나 연주를 가르쳐 드리면서 여가는 물론, 건강까지 좋아지는 걸 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물리치료학과 이명모 교수는 "최근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이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며 "호흡기질환의 경우 의학적 처치와 함께 호흡재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고 호흡관

란 증상의 완화와, 운동수행력 및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논문은 물리치료학과 김지희(23_4학년), 박소연(23_4학년), 서현선(22_3학년), 이혜선(22_3학년) 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9월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긴급 의료비 지원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0일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던 아산, 보령의 2가정에 위기가정 긴급 의료비를 전달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와 가족 모두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질병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기초생계급여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제자년부터 병원비를 체납해온 상태였다.

아산에 거주하는 최 모씨 역시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해왔으나 자녀의 부채와 관절염 등의 질환에 대한 의료 부담이 더해져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행정기관 담당자를 통해 적십자로 전해졌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160여만 원, 210여만 원의 긴급의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광병철 사무처장은 "몸이 아픈 데 병원비 부담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상자의 사연을 듣고 가슴 아팠다"면서 "적십자는 앞으로도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게 새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찾아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후원 관련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041-640-4822에서 가능하다. 공주=정성범기자

지역주민 대상 갑상선암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3월 21일 암예방의 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원장 나성일)는 21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건강강좌는 노년층 부원장과 김혜현 영양사가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질환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다음 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는 다음달 18일 오후 1시~2시까지 "당뇨위험군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본부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강간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전 직원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무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한국성희롱예방센터 전문 강사의 이론 교육과 코메디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

배우로 구성된 콩트팀의 연극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 Too)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성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덕구 회덕동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전대덕구 회덕동복지만두레(회장 김형석)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21일 눈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열린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영양관리를 위해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영양가 높은 반찬을 만들어 해당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인부도 살폈다.

상호 문화교류 업무 협약 체결

선문대학교 - 천안박물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선문대학교 박물관이 천안박물관과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지역박물관 활성화와 문화교류에 합의했다. 출판물을 비롯한 유물 전시·대여, 박물관 교육 활동 등을 협조하게 된다.

천안박물관과는 지난 2009년 공동으로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때 선문대가 소장한 조선시대 회화 40여 점을 전시했다. 이재영 선문대 박물관장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고고학과 역사를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며 "지역에 먼저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용인 천안박물관장은 "대학 박물관과 협력해 지역인 모두가 박물관

과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문대학교 박물관은 대학 박물관 중에서 희귀 명품을 소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박물관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자기, 서예, 조선시대 회화 및 민화 등 소장품이 5,000여 점이다. 중요문화재는 1500여 점이다. 특히 청자상감파랑문대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자로 유명하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자화상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보급 유물이다. 또한 한국 초대 그리스도교 성서 36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서전시를 준비 중이다. 아산=리향주기자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충청권 유일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하반기 실시한 '2017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4년 3주기 평가에 이어 두 번째 A등급이다. 백석문화대 유아교육과는 특별히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현장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아교육과 심은희 학과장은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는 예비유아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 평

천안=채기범기자

기자 수첩



김정환 기자

겨울의 문턱을 빠져 나온 해빙기의 산은 뜻밖에도 많은 위험요소가

해빙기 산사태 사전점검으로 막아내자

존재한다. 해빙기 위험요소 중 하나가 산사태이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암석이나 지표가 무너져 내린다.

봄철 산악지대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토사방지용 시설물들 사이로 쏟아져 내린 흙더미나 돌무더기들을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오후 9시 5분께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 방향에 도로 인근 야산의 경사면이 무너져 흩날리고, 돌덩이 등이 도로로 쏟아졌다. 즉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가 쏟아져

내린 돌에 부딪혀 파손되고, 승용차 1대와 1: 화물차가 토사에 밀려 중앙 분리대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대가 외압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균열이 많은 사면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균열 부위에 눈·비가 스며들고, 해빙기에 수축 팽창이 진행되면서 암석이 불안정해져 도로로 무너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흘러내린 토석을 제거하는 긴급복구를 하는데만 향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양 IC ~ 서공주 IC 구간 양방

향 통제가 상당 시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쏟아진 흩날림과 돌덩이의 부피는 600m³이다. 만약 쏟아진 토사에 달리던 승용차가 매몰되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관계당국은 도로 비탈면의 낙석 및 토사의 흘러내림, 동결에 의한 노면 파손, 석축·옹벽·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반사경, 차선 규제봉, 안전펜스, 중앙분리대와 같은 각종 도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고

새로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의의와 과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의회의 부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야당의 지도자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실시되지 않고는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그들의 예언은 적중했고 1987년 헌법개정에 따라 그 이후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적폐청산이 가능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이후 지속된 효율성 중시의 국가주의와 이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를 개선하는 헌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확대해 왔다.

국가주의에 기초한 효율성 중시의 국가운영은 주민주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지방자치로 발전되지 못하다보니 책임성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별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추진주체

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제외하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제도적 특색자치도와 세 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욕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획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으로 계승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뛰어 넘었다.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국민에게 천명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2가지 측면에서 점차 확대해 왔다.

첫째, 새롭게 개정될 헌법의 내용에 지방분권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미 각각각종에서 제안된 헌법 개정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갈음하는 지방정부, 제2공화국의, 지방정부 자치권의 강화 등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했다.

둘째,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분권'이라는 의미의 자치

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으로써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고 이 법에 따라 자치분권을 추진할 주체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의 추진 주체들과는 상이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지지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치분권의 과정은 고도의 정치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가 약하면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새로운 헌법적 제도 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환경이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주의에 기초한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의 이념과 내용을 실제적인 법률에 구현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비록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지방의 체감도와 높은 재

정분권, 자치경찰, 자치교육은 물론 전 부처에 걸쳐 기능중심의 중앙행정관청의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되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지방의 거버넌스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기제를 확립하고 이해 당사간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방의 정치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양보와 배려의 문화 위에 훈련을 통해 발전된다고 볼 때 주민 자치의 정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자치의 확대는 현장에서 자치분권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할 과제의 범위는 종래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반발도 종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책적 지지는 물론 지역 주민의 변화하는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는 자치분권 과정에 자치분권위원회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자치분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사설

화장 문화 대비 시급하다

장사시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지역에 화장로 23개가 추가로 건설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가 확충된다는 기대가 크다.

친자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조성되고,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 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공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장사시설의 지역별 편차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화장로는 총 52개가 더 생긴다. 화장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가 추가로 건설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지에 우선 확충

된다. 작년 10월 현재 전국 화장로는 342개다. 화장률이 2016년 82.7%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와 불안시설도 각각 13만4천구, 10만6천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화장용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 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장지 확대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연속적인 의식으로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가 추가로 건설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지에 우선 확충

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 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높은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 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작·방조 등도 많다.

여기에 부가된 과대료만도 3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과대료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추징과 불법에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자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합동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단속해왔지만 적발사례만 늘어난 뿐 근절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결국은 구조적으로 허위신고가 불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놀랍게도 이

미 만들어져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컴퓨터나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확정일자 발급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에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도 절감되고 심지어 대출 금리 인하해택도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클린 한 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종이 계약서를 고집하는 문화도 아직 남아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사용신청하는 것이 우선인데 홍보 부족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만 확보만 알려주면 은행에서 확정일자 찾아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좀 더 매끄러워져야 한다.

이용 활성화가 최선이지만 안되면 일정 기간 후 의무화라도 해야 할 판이다. 불법을 막고 편리성을 높여주는 원천 시스템인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기고

도로 위의 약자, 노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박유리

전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장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노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보다 노인들이 더 많아

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5만483명, 2016년 5만7046명, 2017년 6만8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2010년 4만4323명에 비해 37% 이상 증가한 수치다. 18년 1월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2%를 점유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인구 구성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노인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사고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노인 사망 사고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사고의 40% 가량을 차지하여 노인대상 특별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안심 귀가 서비스와 마을회관 방문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차를 보고 건너요' 홍보문구가 새겨진 LED 랜턴 등 홍보물품을 어르신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이 담긴 어르신 사망방(알림)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부 중이다.

지난 달 14일 관내 순찰을 돌던 쌍용지구대 순찰요원은 쌍용역 2번출구 맞은 편 인도에서 다리를 절뚰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의 안전

이 우려되어 목직지를 물어보니 땀이 맺혀있는 신발동소재 어린이집에 땀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하여 노인 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아버지를 만난 딸은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과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는데 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셔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찰관의 교육 및 서비스 외에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작은 관심이 필수불가결함을 당부하고 보행자 스스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고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인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꿈을 꾸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사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탐색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back view



front view



작 품 명 위인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650*800*2300

작품특징 위인상은 양면조형물로 앞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 뒷면은 아인슈타인, 링컨, 헐렌켈러의 흉상으로 조각되어 있어 위인들의 삶과 위대함을 배우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대표브랜드

I LOVE
Artschool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특정지, 특성지, 정미 | 연봉초등학교 | 시학당 |
| 진장초등학교 | 기하학당 | 월광초등학교 | 동산 |
| 도달초등학교 | 유성 | 속초삼다리 유치원 | 시학당 |
| 나래초등학교 | 시학당 | 석정초등학교 | 기하학당 |
| 해랑초등학교 | 시학당, 기하학당, 기하당 | | |

조형물/조형사/조형물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